

흙살림
HEUKSALIM



제2회 농사예술제 흙살림과 (사)흙과 도시 가족과 친환경농업인, 서울의 어린농부들 등이 흙살림 토종농장에 한데 모여 농사와 예술이 하나되는 제2회 농사예술제를 펼쳤다. 뜨거운 날씨에도 토종벼 손모내기와 흙의 얼굴 만들기 등 손에 흙을 묻히며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농사가 종합예술’임을 알리다

토종벼 손모내기·‘흙의 얼굴’ 만들기 성황

흙살림과 (사)흙과 도시는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흙살림 토종농장(충북 괴산군 불정면)에서 제2회 농사예술제를 개최했다. <농사, 예술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임옥상 화가와 함께 토종벼 모내기과 ‘흙의 얼굴’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친환경농업인은 물론 마을 주민과 서울의 어린농부 학교 학생과 가족들이 특별손님으로 참여했다.

이시재 (사)흙과 도시 대표는 “농사는 인간의 상상력과 근육활동, 흙과 물, 바람과 태양이 서로 호응하여 만들어 내는 종합 예술이다”며 “흙의 생명이야말로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이다. 이에 농사가 예술로 물들고, 또 예술이 자연의 생명력을 내화하고자 농사예술축제의 터를 닦는다”며 농사예술제의 취지를 알렸다.

이어 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논이 쌀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어머니로서,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행사에 이어 본격적인 행사로 토종벼 모네기가 진행됐다. 논에 태양 그림과 흙이라는 글자를 손모네기를 통해 형상화해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또 토종벼를 통해 화학농업이 아닌 대안적인 친환경농법을 모색하고, 우리

문화를 되살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태양 그림은 붉은 색깔의 벼가, 흙이라는 글자에는 검은 색깔의 벼가 심겨져 벼가 자라면서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 ‘흙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은 경사진 밭을 파내어 가로 7m 세로 10m의 작은 언덕을 만들면서 인물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작업 또한 임옥상 화가와 함께 행사 참가자 모두가 참여했다. 임옥상 화가는 “농사는 세월을 짓는 것이다. 세월을 짓는 것은

인생을 짓는 것이고, 세상을 짓는 것이다”며 “흙의 얼굴은 농사의 얼굴이자, 또 다른 농사이기에 매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 흙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흙과 도시의 홍기현씨가 산나물과 유기농 쌀밥으로 만든 들빛주먹밥과 깻잎페스토 파스타 등을 밥상으로 차리고, 충북여성살림연대의 꽃차예술가 박순덕씨가 꽃차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관련기사2~3면>



이선복 원내공동체 대표 제5회 흙살림상 수상

지난 6월 2일 흙살림 토종농장에서 펼쳐진 제2회 농사예술제에서는 흙살림 2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6월 11일 흙살림 27주년을 맞이해 흙과 농업과 생명을 살리는 흙살림 철학을 농사 현장에서 실천하는 농부를 선정해 제5회 흙살림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상자는 경남 사천에서 원내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복 씨이다. 이선복 씨는 30여 년 가까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꾸려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지면 안내

농사, 예술에 물들다
농사예술제 1~3면

흙살림 27주년 대담
이태근 - 권영근 5면

부식 만드는 열쇠 7면

텃밭농사연대기
6월의 할 일 8면

흙살림 현장교육
안동생명고 11면

6월 11일은 흙살림 27주년 기념일입니다. 흙살림은 앞으로도 흙과 농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앞장서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토종논에 태양 그림과 흙 글씨를 심다



제2회 농사예술제에서는 토종논에 손모내기를 통해 태양 그림과 흙 글씨를 그려넣는 작업을 했다. 먼저 철사로 그림과 글씨의 틀을 만들고, 이것을 논으로 옮긴 후 그 틀에 맞추어 색깔이 다른 벼를 심었다. 벼가 자라 이삭이 패면 글과 그림이 또렷이 드러나게 된다.

토종벼로 친환경농법 모색

가위찰, 까투리찰, 다다조, 달골못, 돼지찰, 버들벼, 북쪽조, 자광도, 자치나, 장끼찰, 알큰차니락, 여명, 올뭇개, 흑갱..... 토종벼의 이름들이다.

토종벼는 우리 땅에 뿌리내리고 오랜 시간을 견디고 이 땅을 지켜오며, 우리조상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토박이 종자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장려품종”이 등장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온 토종이 불과 수십 년 안에 소멸의 위기를 맞이했다. 하나의 품종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문화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10여 년 전, 홍살림은 종자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토종벼들을 되살리는 일을 시작했다. 토종벼에 배인 우리 문화를 되살리고, 토종벼를 통해 화학농업이 아닌 대안적인 친환경농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유기농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 종자회사에서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도록 개발된 종자를 사다 쓰기 때문이다.

‘토종’은 긴 시간 자연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건강한 흙과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적응해 온 토종 종자를 살려야 한다. 모든 시민의 다양한 관점에서 토종벼가 재해석되고, 세대를 이어 나가면 좋겠다.

글 윤성희 홍살림 전무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홍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 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홍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홍살림
HEUKSALIM

뜨거운 여름철!
아직도
고온장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온실온도를 **확!** 내려주고
생산량을 **쑥!** 올려줍니다

**친환경 자연제거형
온실차광 코팅제**

저렴한 비용, **단 1회** 차광코팅으로
여름철 하우스 고온 해결

- 단 한번 시공으로 3~4℃ 온도 하강 효과
- 선택적 광차단으로 작물 생육 극대화 효과
- 광조절 코팅제와 설계기법을 도입한 국내 최초 고기능성 온실 차광제



탁월한 온도
저하 효과

경제적인
투자

생산성과
품질 증대

혼합비율 조절로
차광율 선택 가능





RDA 농촌진흥청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에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발한 특허기술(10-2015-006187)을 이전 받아 노루페인트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080-333-8179(3) | 입금처 323-01-063992 농협

‘나를 사랑해줘’ 흙의 얼굴이 드러나다



흙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1. 포크레인으로 흙을 모으는 작업 2. 얼굴 전체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 3. 코 등 세부모습을 조형 중 4. 윤곽선에 색을 입히는 과정.

임옥상 화가 “흙의 얼굴을 만듭시다”

농사는 세월을 짓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짓는 것은 인생을 짓는 것이고 세상을 짓는 것입니다. 자연의 도리를 찾는 것이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자연과 하나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온갖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치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세월과 함께합니다. 농사는 시간의 변화와 변동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단순히 따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변화 질서를 새롭게 해석, 창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그 물망-매트릭스를 늘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농사는 지속과 변화의 체계요 내용입니다.

‘흙의 얼굴’은 농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흙의 얼굴은 땅의 얼굴이요, 세상의 얼굴이요, 나의 얼굴이요, 우리의 얼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고, 시절이 변하면 변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에 젖습니다. 해가 뜨면, 지면, 밤이 오면, 달이 솟으면, 별뿔별이 지면, 안개가 서리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온전히 그 모두를 끌어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새봄이 오면 오는 대로 흙의 얼굴은 온전히 한 몸입니다.

‘흙의 얼굴’은 또 다른 농사입니다. 새봄이 오면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추수하듯 흙의 얼굴도 매해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 흙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흙의 몸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맨손 맨발로 비비고 밟고 만져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합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흙의 신, 흙 할머니, 흙 엄마가 이번은 어떤 모습일까요? ‘흙의 얼굴’은 새해의 농사의 표상입니다. 그해의 길흉화복입니다. 저 언덕에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해마다 열리는 마을 축제, ‘흙의 얼굴’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흙의 얼굴’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농사를, 농사 아닌 농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마을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임옥상 화가



임옥상 화가(맨 오른쪽)와 어린 농부들이 흙의 얼굴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옥상 화가 일문일답

■ 이번 퍼포먼스는 흙살림 농장에서 개최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흙살림의 흙을 살리는 활동에 예술적 터치를 더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농사가 예술의 정신임을 알리고 싶었다. 농사를 지을 때 때를 기다리는 겸허함과 모든 몸을 불사르는 노동과 수확물을 나누는 정신이 바로 예술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도시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잘난 줄만 아

아이들이 흙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마음 배우길...

는 사람들이 농촌으로의 회귀를 통해 이 정신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 흙살림 농장을 선택한 것이다.

■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들과는 흙이 생명이라는 것을 장난을 통해 재미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신나게 한바탕 놀 것이다. 흙이 ‘나를 괴롭히지 마라’며 얼굴을 드러냈고, 우리는 이 흙을 어루만지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줄 것이다.

“모든 생명과 유기적 관계 맺는데 최선”

제5회 흙살림상 - 이선복 대표

“큰 돈을 벌지 못해도,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도, 농사는 나에게 있어 천직이다.”
 경남 사천에서 흰내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복 씨(61)는 1990년 전후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하다 흙을 살리는 일이 마음에 와 닿아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마을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익충·해충 구분도 관점에 따라 달라져

■ 더디더라도 다함께
 흰내공동체는 마을 전체 43가구 중 26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공동체이다. 주로 벼농사를 재배하고 부수적으로 참깨, 마늘, 시금치 등을 키우고 있다.

이선복 씨가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짓다 우렁이 농법을 알게 되었고, 이 농법이 제초에 도움을 주면서 일손을 덜고 수확 또한 좋아 주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면서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이후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면서 친환경단지까지 조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마을 인구가 노령화되고, 타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곳이 생겨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벼농사 중심에서 소득작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농사를 주생활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수입을 올려야 친환경 농사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땅과 물과 자연을 살린다
 흰내 친환경단지는 겨울에 녹비작물로 헤어리베치와 자운

영을 심는다. 질소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콩과 작물을 선택한 것이다. 또 벼를 수확하고 남은 짚은 한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모두 땅으로 돌려보낸다.

벼짚을 모두 썰어 넣다보니 유기물 함량이 점점 늘어났다. 이 덕분인지 벼를 모내기 할 때 한두 포기만 심어도 24~26포기로 분얼이 되고, 이삭도 굵어져 이 종자를 구하겠다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최근엔 겨울 가뭄이 심해 논 옆에 둠병을 만들었다. 이 둠병에 미꾸라지, 참깨, 장어를 들여놓을 생각이다. 이들은 원래 논에서 볼 수 있었던 생명체이지만, 콘크리트로 수로를 놓으면서 사라진 것들이다. 둠병과 논 사이로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다. 둠병을 만들어보니 논둑 밑에 다슬기도 살게 됐다. 수생동식물을 옛날과 같이 복원하면서 소득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근처엔 공원을 만들어 체험장을 열 생각도 갖고 있다.

■ 농사도 재미있다
 “농사는 삶의 교육장이다. 그



사천의 바다를 뒷배경으로 흰내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선복 대표의 오른쪽(사진 왼쪽 부분)으로 둠병이 만들어져 논에 수생동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런 것들을 눈치 채고 눈여겨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농사가 주는 엄청난 재미라고 생각한다.”

이선복 대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면 벼가 자라는 동안 벼와 영양경쟁을 펼치는 잡초(이곳에서는 ‘벼풀’이라고 부름)가 있는데 워낙 무성한 탓에 그 위로 사람이 뛰어다녀도 밭이 안 빠질 정도로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풀에 진딧물이 잔뜩 붙는다. 가만히 놔두면 진딧물 덕에 제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들어 버린다. 하지만 무당벌레들이 날아와 진딧물을 먹으면 벼풀은 생생히 살아난다. 진딧물은 해충이고 무당벌레는 익충이라 하지만 제초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어떤 관점을 갖고서 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논에 중간물빼기를

하면 벼의 웃자람을 막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때는 올챙이가 아직 개구리가 못되고 뱀다리 정도만 나오는 시기이다. 물을 빼고 보면 논바닥의 사람발자국에 남아 있는 물에 올챙이들이 모여 있다.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에 얼른 물을 대준다. 그러면 이 올챙이들이 살아남아 청개구리가 되어 1마리당 벼멸구 500마리 정도를 먹어치운다. 손해를 감수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옹지마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

■ 친환경농사는 유기적 관계 맺기다
 최근 몇 년 사이 먹노린재가 극성이다.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친환경을 포기하려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선복 씨를 비롯한 흰내공동체는 이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먹노린재가

무엇을 싫어할까 고민하며 쟁과리나 북을 쳐 보기도 했다. 식초를 물에 타 쳐 보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주로 손으로 잡게 됐다. 이거저것 시도하다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전 송충이 문제로 시골벽적했지만 시간이 지나 저절로 없어진 것처럼 약을 치는 것을 빨리 중단해서 생태계 순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유기농업의 유기라는 것은 모든 생물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선복 회장의 이런 유기적 관점은 공동체 마을로까지 이어져 있다. 현재 마을의 절반 정도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농업을 기반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마을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모두가 어우러져 잘 사는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글·사진 이방현 기자

흙살림 창립 27주년을 축하합니다

흙살림상 1회 수상자 성기남 흙사랑영농조합 대표 이도훈	흙살림상 2회 수상자 이일웅 산지귀농귀촌학교 교장 정우창	흙살림상 3회 수상자 김봉기 충북농업마이스터대 학장 류훈모	흙살림상 4회 수상자 임형락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백미숙	흙살림연구소 회장 석종욱 한바이오영농조합 대표 이병오
		흙살림현장농민 연구원 권득산	산계뜰영농조합 대표 이선우	흙살림연구소 감사 박상일

“농사가 예술노동이 될 수 있도록 공리”

흙살림 27주년 특별 대담

이태근 - 권영근

흙살림 회장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태근 회장(왼쪽)과 권영근 전 소장이 흙살림 27주년을 맞아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특별대담을 나누었다.

흙살림은 창립 27주년을 맞아 이태근 흙살림 회장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날선 비판을 해온 권영근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과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 흙살림 청주센터에서 진행된 대담은 흙살림의 27년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 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흙살림 신문은 이 대담 내용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태근 흙살림 신문이 5월 250호를 맞았고 흙살림은 6월 11일 27주년이 된다. 흙살림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있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권영근 흙살림연구소는 초창기 대안연구소였다. 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선 흙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출발한 것이 흙살림연구소다. 하지만 대안적인 것을 내놓는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태근 대안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권영근 다산의 3농-후농(厚農)·편농(便農)·상농(上農)-에 기초해서 농정을 펼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농업을 해야 흙살림도 살 수 있다. 흙살림이 잘 해온 것이 바로 흙살리기이다. 농업이라는 것은 지역 토착적인 흙과 관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이다. 하지만 한국의 농학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다. 흙살림연구소는 대안농업으로서 흙살리기를 꼭 해야만 한다. 농민은 스스로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이태근 그러기 위해선 흙살리기에 대한 농민들의 의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영근 아직도 우리나라는 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 흙이 모든 지역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자. 프랑스는 그 지역의 땅에 맞는 포도를 생산해 와인을 만든다. 우리는 흙을 갖고 농사짓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고통이 아니라 예술노동이라고 여긴다. 그 지역의 흙을 알고 그 땅에 맞춰 농사지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와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공리를 해야 한다.

이태근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권영근 흙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지역별 흙을 조사하고 그 흙에 맞춘 작물을 키워야 한다. 흙이란 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후와 물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정보와 연구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흙에 맞는 종자를 찾는 것도 흙살림연구소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태근 하지만 현실에선 땅에 맞춘 작물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춘 작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돈이 되는 농사를 짓는 것이다.

권영근 농민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보수와 수구다.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 땅에 똑같은 농사방식으로 똑같이 짓고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농민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동해서 바꾸어나가야 한다. 서로 경쟁하려다보니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흙살림

연구소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태근 우리나라는 아직 협동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흙살림연구소 또한 초창기 농촌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소비자를 대하는 유통과 정책을 제안하는 행정 담당 단체와의 연대를 꾀해왔다. 하지만 이 연대는 깨져버리고 각자 모든 걸 도맡아 하려는 경쟁에 빠져 버렸다. 자본이 텅텅뚫어지니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권영근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민과 자본의 문제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본적 욕심 때문에 농업은 계속 위기를 맞아왔다. 농업과 자본의 중재자가 정부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태근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농민월급제, 퇴비배합비율 표시 등 흙살림에서는 새로운 대안과 제안을 꾸준히 내세워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권영근 그렇기에 자기 표현기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을 통해 논쟁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필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태근 흙살림은 27년간 유기농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왔다. 유기농업이 농촌의 삶을 바꿔줄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흙살림이 걸어온 길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권영근 먼저 유기농업에 있어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흙살림연구소의 연구적 측면에서 농생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잡초를 잘 알아야 한다. 흙살리기에 있어서 잡초와 잘 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 흙살림의 정신을 재정립해 흙살림 선언을 선포했으면 한다. 이 선언을 통해 흙살림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흙살림 27주년 축하 메시지<1>

김주숙 섬동 아름다운 생명의 길, 흙살림 생명살림 사람살림의 꿈 이루세요
일환지식생전지인 한 그릇 밥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산다 지원 박양준
김준기 미리 축하를 드리오. 고현석 축하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병화 역시 이박사답소
박동복 지금까지 큰일하셨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완수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낮은 곳에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길후 축하축하 드립니다^^
남기에 축하 드립니다. 땅을 살리는 일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한마음으로 외길을 걸으신 회장님께 깊은

은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함을 전하며 앞으로 장족의 발전을 비읍니다.
이종태 그렇게 오래 되었나요? 흙살림 창립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효근 축하드려요. 더욱 흙냄새나는..
Jin-Deok Kim 축하합니다
노원래 축하 드립니다!! 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김기주 흙을 살리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구 축하합니다
박재동 흙살림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이 지속 가능했을까요. 이태근 회장님의 의지력이 우리의 생명산업 흙을 살리고 있지요. 27주년 창립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방희 축하드립니다.
전중수 축하와 존경 보냅니다.
김형태 27주년 축하합니다.
김영배 축하드립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덕배 오랜 세월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도 드립니다.
배준경 대단합니다 창립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영석 무슨 일이든, 가장 어려운 것이 꾸준한 것인데... 축하드립니다!
Myoung-chaе Jоung 축하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흙의 마음으로 세상을 비춰주세요!
박진우 축하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잘 지켜 주십시오...
김일환 축하드립니다.
김식 힘내세요! 선배님!
김동진 이 회장님! 미리 축하

합니다. 흙은 인류 행복의 원형 질이지요.
김수정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 축하합니다! 응원의 박수와 함께!!
윤장래 축하드립니다^^
안중운 축하 축하!
권중협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병순 축하해요! 넘어 불모지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문성희 축하 드립니다
정인출 축하 드립니다
권연재 창립 27주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의 건강한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유홍상 축하드리며, 흙살림 화이팅!
최영숙 축하합니다~♡우리 딸

이랑 동갑이네..
정학수 축하드립니다
윤준현 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오은영 존경합니다 교수님 from LA
유영선 축하드립니다
강대성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괴산을 가보고 싶은데..
강창민 무궁발전을 빕니다.
송기호 선구자적 역할 지지합니다
류갑희 흙의 날 27주년을 축하드려요 이회장님 잘 계시죠 이경 축하드립니다!!
홍은영 축하드려요. 흙살림 늘고맙습니다
구교영 축하드립니다 흙살림 생명살림
이강섭 흙=진실=창조.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영현 흙과 그리고 유기농과 함께해 온 회장님과 흙살림 가족들에게 축하드립니다 ~^^

흥살림 '네마킹'으로 선충 피해 줄인다

신규 병해충 관리용 자재 2종 출시 바이러스병 예방엔 '빅토리골드 액상'

병해충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맞춰 흥살림 연구소에서는 신규 물질을 사용하여 최근에 등록된 총해 관리용 자재인 네마킹(공시-2-5-166)과 여러해 동안 탁월한 효과로 시장에서 각광받았던 병해 관리용 자재인 빅토리골드 액상(공시-3-3-191)을 런칭하였다.

상표명 네마킹은 채종유와 계피유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토양내에 존재하는 식물기생성 선충(뿌리혹선충, 뿌리썩이선충 등) 방제가 주목적인 제품이다. 액상 자재로 사용 방법은 희석액을 토양에 관주하면 되며,

작물 정식 전, 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충 피해 예방 및 낮은 밀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농가는 작물 정식 후 관주하면 되나, 피해가 심한 포장은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작물 재배 중은 물론 정식 전에도 관주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1000배 희석액을 사용하며, 150평당 한 병(500ml)정도 사용하면 된다. 토양 관주 전용 제품으로 엽면 살포는 피해야 한다. 작년 12월에 등록된 신규 제품으로 선충 피해가 문제되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명 빅토리골드 액상

은 오배자추출물과 에틸알콜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식물 바이러스 병 예방 및 방제가 주목적인 제품이다. 100% 한방 천연물이 주성분으로 주로 여러 종의 식물 바이러스병과 수박과실 썩음병 방제에 사용된다. 전 작물 사용 가능하며 생육기 엽면 살포시 500배 희석액 사용을 권장하며, 토양 관주시 100평당 2병(800ml) 정도 사용하면 된다. 알카리 제품과의 혼용을 금지하며, 타 제품과 혼용시 문의하시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식물 바이러스 방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가지과 작물 및 박과 작물 재배 농가에서 사용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살림에서 신규 출시한 병해충 관리용 자재인 네마킹(왼쪽)과 빅토리골드 액상.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실시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가능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에 시행중이던 농약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은 대상에 적용)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약 PLS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

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적합하면 통과, 부적합이면 농산물 출하금지, 회수, 반송, 폐기 처분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식품 수입량을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를 위해 도입한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는 2006년, EU와 대만은 2008년, 미국은 1960년대에 도입되었다. 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경우는 기준에 따라 적용되지만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제 기준(CODEX)을 적용하거나 유사농산물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PLS 시행 후에는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일역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으로

불검출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식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 검사 시 부적합을 받아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예를 들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기존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을 적용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되는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닥칠 농업의 변화가 친환경농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흥살림 27주년 축하 메시지<2>

김기주 축하합니다 ·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장건 벌써 27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축합니다^^
반명수 이회장님의 노고와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힘찬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27주년 행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도숙 축하하오.
김식 그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근선 축하합니다
장승현 축하하오
박동복 축하합니다. 앞으로 세 계로 향한 무궁한 발전이 기대

됩니다.
김수정 축하드립니다^^~^^ 흥살림 최고
이병백 축하드립니다 흥살림 생명살림
김홍배 흥은 거짓말을 앓는다 하지요.
현의송 가장 훌륭한 일,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묵묵히 실천하시는 이태근 회장 존경합니다.
류일렬 흥살림 이태근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흥살림 회원분들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흥살림의 주인인 흥살림을 애용하는 유기농 농부님들과 소비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전민철 축하합니다.
김준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우창 축하합니다
윤순자 축하드립니다.
서대석 축하드립니다 ^^
박기운 축하드립니다. 그간 애써셨습니다
이창호 흥살림 창립 27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조동순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흥살림 창립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큰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최선희 축하드립니다. 빵만들 어 가겠습니다.
Jaeyoun Cha 흥살림 창립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되새기시며 앞으로도 희망과 생명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민양운 어머니 대지를 지키고 살리는 흥살림에 감사드립니다
신준환 축하합니다. 그리고 흥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현대 인류의 등불입니다.
나상기 축하합니다
지선호 축하드립니다..더 큰 희망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문중환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흥이 건강한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흥이

살아야 우리도 건강한 삶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장승현 27년 대단하십니다.
류점렬 축하드립니다
김보성 추카추카~~
유재풍 축하드립니다~
송미숙 축하드립니다. "흥살림"
박완규 축하드립니다
이두영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의 젖과 같은 흥이죠.^^
조인상 축하드립니다
성백주 축하 많이 많이 합니다. 선구자
금석현 회장님 항상 응원드립니다
순열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흥살림의 변명과 발전을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비료공장’ 지렁이를 밭으로 보내라

부식 만드는 10가지 열쇠

1. 피복작물을 태우지 말 것

피복작물은 풍부한 탄소, 질소 및 유효성을 함유하는데, 이들 미네랄은 태우면 가스 형태로 돌아간다. 이들 세가지 원소는 대부분 토양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복작물을 토양의 A층(표토에서 5~10cm)에 가볍게 넣는 것이 생산적이다.

2. 모든 초지에 그리고 모든 곡류 아래 두과식물을 포함할 것

클로버와 같은 두과식물은 토양 먹이사슬 중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경향이 있다. 부식과 점토를 결합하여 토양건강의 성배인 입단구조를 만드는 것은 균사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뭉쳐진 토양에서는 지렁이와 같이 부식을 형성하는 거장들이 보다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그들의 선물을 방해받지 않고 배달한다. 곡류 작물 아래 있는 피복식물도 질소를 공급하며, 모든 식물의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합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네랄(칼슘과 인)을 용해하는 산성 분출물을 방출한다.

3. 가능할 때마다 피복작물 혼파하기

우리는 지금 5가지 과가 다른 피복작물을 혼파하는 것이 탁월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식물 뿌리는 주변 토양에 페놀 화합물을 방출하기 전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다. 우리 몸 세포들이 녹색차, 검은 초콜릿에서 유래한 유사한 화합물의 존재에서 변성하는 것처럼 토양 생물은 초대형 성장을 즐긴다. 토양 구조가 변하고, 부식 생성이 빨라지며, 이 피복 작물이 유용 미

생물에 의해 수여된 모든 편익을 증폭한다. 5가지 식물과는 잔디, 곡류, 십자화과, 두과 및 명아주이다. 뒤의 두과는 좋은 곰팡이를 억제하는 생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적은 비율로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바람직한 반응을 내기 위해서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4. 부식 발견

부식산은 대부분의 토양에서 사라진 유용한 부식 형성 곰팡이의 가장 강력한 촉진 물질이다. 이들 곰팡이는 이 천연물질에서 풍부한 긴 사슬 탄수화물과 복잡한 화합물을 찾는다. 적당히 회복되면 이 사라진 연결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대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토양에서 머물 안정된 탄소를 만든다.

5. 퇴비 아우르기

퇴비는 빠른 과정을 통해 생성된 부식 물질의 합체 이상이며, 자연적 분해 과정을 최적화한 것이다. 퇴비는 토양이 부식을 생성하는 역량을 늘리는 매우 다양하며 수많은 유용 생물을 공급한다. 퇴비 1 숟가락에는 30,000가지 이상의 다른 종의 생물이 50억마리 이상 들어 있다. 이 작업자의 대부분은 산성/염류 비료, 농약과 잘못된 토양관리로 훼손되었다. 퇴비는 이들 핵심 작업자들을 회복시켜 토양 탄소 증가가 퇴비로 첨가된 부식보다 몇 배나 많은 결과를 낳는다.

6. 경운 최소화

우리 토양 생물들은 차가운 쇠의 침범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운은 유용 곰팡이를 썰어 죽인다. 우리가 토양을 열 때마다 우리는 산소도 공급하며,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부식의 일부를 산화시킨다. 토양이 젖을 때 작업하면 손실이 몇 배 증가한다. 무경운 농사의 주요 이슈는 글리포세이트(제초제)의 존과 관련된다. 이 화학물질은 속여서 팔아온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임이 증명될 것이므로 그리 오래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글리포세이트 없는 무경운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확실히 롤러 크리퍼, 피복작물 및 기타 손실을 보상할 때

잔디, 곡류, 십자화과, 두과, 명아주 다섯 가지 다른 과 피복작물 혼파하면 부식 생성촉진, 유용미생물 효과 증폭

안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혐오물질을 금지할 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때 언제 나처럼 인간 주도성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7. 지렁이 되돌리기

이 소화관처럼 생긴 분절된 튜브들은 토양의 내장이다. 그들은 작물 잔재를 소화하고, 식물 먹이를 생산하며, 독특한 유용 세균군을 배양함으로써 식물의 외부 위장의 일부로 기여하는데, 이들이 없다면 토양 생물군은 불안정하다. 대부분의 토양에는 원래 있던 지렁이들의 일부만 존재하며, 이 상실에 대해 지불할 대가는 매우 크다. 지렁이는 작은 비료공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에서 나오는 부숙된

재료는 주위 토양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지렁이분에는 10배 많은 가리, 7배 많은 질소, 5배 많은 인 및 3배 많은 고토와 150% 더 많은 칼슘이 들어 있다. 지렁이는 작물 잔재와 기타 유기물질을 다 큰 분해 형태보다 4배 빨리 퇴비화하며, 근권에 산소를 공급하고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미네랄을 이동하며, 식물 생육과 회복을 증진한다. 토양 한 삽에 25마리의 성배를 성취할 수 있으면 이 구불구불한 작업자는 연간 10a당 30톤의 지렁이분을 생산할 것이다. 지렁이분은 톤당 100달러(108,000원)에 판매되므로 3,000달러(3,240,000원)어치의 무료 비료를 확보하는 셈이다. 문자 그대로 황재하는 것이다.

8. 가축 포함하기

바이오다이나믹의 창시자 루돌프 스타이너는 소가 없는 농사는 농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작물 생산자들은 이 말의 지혜를 발견했다. 초지 재배와 구간별 방목은 종종 결합되어 사용되는데, 증명된 부식 생성 수단이다. 사실, 그들은 유기물을 개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들 사이에 있으며, 그들 모두는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고, 그것은 곰팡이가 번성할 때이다.

9. 그루터기 소화 촉진

실제로 활성 있는 토양에서 작물 잔재는 6주 내에 토양의 통합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수확 후 수개월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뭔가를 해야 한다. 이 그루터기가 부식으로 빨리 전환될수록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잔재는 서서히 가스 형태로 전환되고 우리는 훌륭한 부식 생성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트리코데마(역자 주) 흙살림 토리)와 같은 미생물은 게걸스러운 셀룰로스 분해자이며, 작물 잔재 하에서 빨리 증식한다. 유사하게, 유용한 혐기성 미생물(역자 주) 흙살림 빛모음, 활인산 등)은 많은 다른 이득을 제공하면서 잔재 소화를 도울 수 있다.

10. 작업자를 위해 산소 제공

작물의 활력과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소는 질소, 인산, 또는 가리가 아니다. 미생물, 식물, 동물 및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산소 가스다.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은 몇 가지 핵심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토양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게 물리적으로 돕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석고는 매우 가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점토를 부수는 이 물질은 과잉의 마그네슘과 나트륨을 제거한다. 이 미네랄들은 단단하고 폐쇄된 비생산적인 토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남아공 기업이 개발한 토양관리기인 Puri-Care International은 산소의 회복력에 대한 극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이들 귀중한 장치들은 관개수에 도입된 오존과 과산화수소의 융합을 통해 토양에 복합적인 산소 종을 공급한다. 그 영향은 심대하다. 물이 이동할 때마다 토양 구조가 바뀐다(중중 입단의 살아있는 토양이 2m 깊이까지 생성된다). 산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수익성, 병충해 압력, 생산성, 농사의 즐거움을 포함하여... 번역 최관호 흙살림 연구위원장 출처 호주NTS뉴스레터

칼슘먹고 튼튼!



튼튼칼 1L, 10L

- 수용성 칼슘공급 칼슘 17%
- 무농약재배까지
- 속효성 칼슘공급
- 아미노산 첨가, 생육 촉진



유기튼튼칼 500ml

- 100% 수용성칼슘
- 속효성 칼슘공급
- 칼슘 보유력이 약한 토양에 효과적
- 공시-3-2-58

액상 키토산 제제



흙살림 키토산 1L, 10L

- 감각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함유
- 빠른 흡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증진
- 유기미생물 증식에 효과적
- 공시-3-3-52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흙살림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주)흙살림

결순 따고 풀 매고 돌아서면 또 할 일

텃밭농사 연대기<3>

6월은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텃밭에서 한낮을 보내는 일이 점점 힘든 계절이 되어 간다. 아직 얼어있는 땅에 삽질을 하며 퇴비를 주었던 게 옛 그제 같은데 이제는 잠깐 동안의 밭일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씨 뿌리고 모종 심을 때만 해도 설레는 마음이 가득이었다면 지금은 제법 농부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욕심껏 다양한 작물을 심은 탓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게다가 나보다 먼저 작물을 시식해대는 해충들 때문에 속이 탄다. 손바닥 만 한 밭터기에도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농부들의 노고는 과연 얼마만한 것일지 가늠도 안 된다. 게다가 날씨처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요인들까지 더해지면 농사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치워야 수확의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을.



할 일 1. 결순따기와 솟아주기
심은 지 몇 주 지난 모종은 제법 자리를 잡아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비실대다가 맥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들은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들이다. 원래부터 모종에 문제가 있었거나 영양 부족, 환경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미 죽은 것을 어쩌랴. 죽은 것들은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새 모종을 구해서 심어주면 된다.
단순히 심고 물주고 하는 작업 외에 제법 농사일 같다고 여겨지는 작업이 있다. 바로 결순제거다. 결순제거란 원줄기와 본가지 사이에 나오는 순을 따주는 것을 말한다. 방울토마토와 토마토를 키울 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다. 결순을 따주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잎을 내게 되면서 과실로 가야할 영양분을 뺏기게 된다. 고추와 가지, 호박, 오이 등도 결순은 나오지만 이들은 눈에 띄게 수확량 차이가 나지는 않으므로 생략해도 된다. 대신 고추와 토마토에 피는 첫 꽃은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고추의 원줄기가 'Y'자 형태로 갈라지는 부분을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자라는 첫 번째 꽃대를 제거해주면 좋다. 처음 피는 꽃이 마냥 신기하고 예쁘지만 초기의 영양분이 첫 번째 꽃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꽃을 피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따주어야 한다. 토마토나 방울토마토의 첫 꽃대도 마찬가지다.

텃밭에 파종했던 씨앗들도 제법 싹을 틔워 자라나고 있다. 흠뿌리거나 촘촘히 줄뿌림하여 심은 잎채소들이 이제는 비좁아 보인다. 계속 키울 것들만 남겨 놓고 솟아주기를 해야 할 때다. 솟아 주기는 보통 2~3차레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는 5cm 정도 간격으로 솟다가 최종적으로는 25~30cm 정도 간격이 되도록 하면 된다. 솟아 낸 잎채소는 첫 수확물이 되는 셈이다.

할 일 2. 풀매고 거름주기
작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것들이 있다. 이른바 잡초. 도대체 어디에 씨앗이 숨어있었는지 고랑은 물론 작물 주위에서도 모르는 싹들이 쑥쑥 올라온다. 크는 속도는 왜 이리 빠르는지. 이제는 슬슬 풀매는 작업도 해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큰 것들은 잘라 내거나 손으로 뽑고 자잘한 것들을 호미로 살살 긁어낸다. 작물 주위로 긁어주면 잡초 숨 쉴 수 있어서 좋다. 풀매기로 밭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웃거름을 한다. 작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잎과 줄기, 뿌리가 충분히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 웃거름을 주는데 휴살림생선



삼각지주(왼쪽 사진)와 막대지주.



아미노산, 잎나라와 같은 질소질 액비를 사용하면 좋다. 질소는 식물의 세포와 엽록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흔히 쓰이는 영양성분이다. 작물을 심은 지 3주 이상 되었을 때 1~2주 간격으로 2~3회 웃거름을 준다. 다만 작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기만 하면 꽃을 피우는 것이 늦어지고 병해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작물의 상태를 보면서 웃거름을 줘야 한다.

할 일 3. 지주대세우기
작물은 생각보다 크게 자란다. 농가의 하우스에서 잘 키워진 토마토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텃밭의 작물들도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새 무성해진다. 이 때 작물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면 줄기가 휘어서 땅을 향해 기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먹

을 만 한 열매를 얻기도 힘들어지고 각종 병해에 시달리게 된다. 때문에 지주대를 세워 작물이 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같은 작물에 지주대를 세운다. 토마토는 특히 개체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히 때문에 이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한 지주를 세우는 것이 좋다. 지주를 세우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삼각지주와 막대지주이다. 삼각지주는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고 덩굴성 작물을 위한 그물망을 치기 좋다. 고추와 같이 곧게 자라고 무게를 크게 견딜 필요가 없을 때는 막대형 지주를 사용한다. 작물 하나에 지주 하나씩 세울 수도 있지만 끈을 이용해서 작물을 고정시키면 효율적이다.

글 송지은 농자재팀

 <p>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p>	 <p>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균배양체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밭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p>	
 <p>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휴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p>	 <p>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잎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잎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p>	 <p>실내텃밭으로 안성맞춤 그로우백 21L 잎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p>

정부는 왜 농촌 이주자를 지원할까

귀농·귀촌이야기<5>

농촌 공동화 막고 활력 찾기 위한 대책

질문 하나.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까? 다들 아시다시피 전혀 없다. 질문 또 하나.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원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면 이런저런 지원을 한다니. 심지어 정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으로 갈지를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예비 귀농귀촌 대상자 인데도 귀농 혹은 귀촌 관련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우리가 받는 귀농귀촌교육역시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다. 중앙 행정부서인 농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예산지원이 그것이다. 예컨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직접 교육비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모두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정부 돈이, 곧 국민의 세금이 도시인들의 농촌 이주 전에 이미 사전 교육비용으로도 쓰인다는 말이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농촌으로 이주하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지원은 2015년 7월부터 공식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까?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가 도시인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현재 우리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이 농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다. 도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너무 과도하고 농촌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농촌은 군 단위 인구가 고작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고 학교는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농촌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면 정부 지원이 없지만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면 여러가지 지원이 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 뿐인가. 군 단위 지역에는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다. 조산원도 물론 없다. 병원다운 병원을 이용하려면 이웃 도회지로 가야 한다. 또한 농촌에서 마을 청년회를 졸업하려면 70세가 되어야 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그 넓은 땅에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해법이 도시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도시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그것이다. 정부는 만

약 이들 가운데 일부라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농촌이 어느 정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도시인은 대부분 고학력자이고 사회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들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축적한 계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도시 출신의 인적 자원들이 농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농촌 지역에서 충분히 '혁신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혁신적인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농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도시인의 농촌 이주 지원은 궁극적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의 고급 인력이 농촌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쇠퇴한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귀농을 고려한다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 경우창 산지귀농귀촌학교 교장·흙살림 이사

유기농업 발전

홍살림 과 **대신택배**
가 함께합니다.



대신평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키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주선

대신평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대신평합물류(주) 무역 유통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대신택배는 농촌사회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7년 12월 제 5회 농촌사회공헌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327-6)

Tel. 고객센터 043-222-4582 | 영업부 070-4313-5410~8 | 대표번호 043-255-3211 / Fax. 고객센터 043-255-3220 | 영업부 043-256-3220 | 대표번호 043-255-3220

흙 입자간의 틈에서 물 보유하는 기능

흙 살리기<5>

미세한 공극에서는 모세관 인력 작용

■ 양분 공급과 수분 보유 기능
흙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의 풍부한 보고이다. 녹색식물의 원소 조성을 살펴보면, 탄소, 산소, 수소의 3원소가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 물, 산소 외에도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황, 아연, 망간, 붕소 등 16원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기 중에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양분 원소는 흙으로부터 식물의 뿌리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다. 흙에 식물을 부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흙에서는 통상 질소, 인산, 칼륨 이외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하기 쉬운 이 3원소는 외부로부터 비료를 통해 경지에 인위적으로 보급된다.

양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흙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수분(물)을 보유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흙의 함양기능이라 부른다. 만약 이

작용이 없다면 내린 빗물은 그대로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홍수와 한발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이 중요한 물의 보유기능은 흙의 다양한 공극, 즉 흙 입자간의 틈에서 한다. 이 공극은 수십옹스트롱(백만분의 1mm)에서부터 수mm까지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이 있다. 이와 같이 흙은 다공질(多孔質)인 것이다.

미세한 공극에서는 모세관 인력에 의해 중력에 역행하여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굵은 공극에서는 모세관 인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중력으로 흘러 내려가고, 그 대신 공기가 들어온다. 비가 온 직후에는 큰 공극도 물로 가득차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빠져 나간다. 그러나 큰 공극에 물이 없어도 작은 공극에는 물이 남아 있다. 이 물의 감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물은 흙에서 없어지지 않게 된다. 식물이 이용하는 물은 주로 작은 공극의 물이고, 점토질의 흙이 모래의



흙이 외부로부터 여러가지 영향에 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완충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흙의 구조가 단순화되면 이 완충력이 약해져 흙이 파괴된다.

흙보다도 이용할 수 있는 양이 훨씬 크다.

흙을 팠을 때 경험할 수 있듯이 흙의 표면이 보송보송하게 말라있는 경우에도 그 밑은 꽤 축축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지표면에 있는 흙이 마르면 물의 이동 저항을 크게 증대시키므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물의 차단벽 형성작용으로 흙에서 수분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 흙 자체가 변화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완충력
흙이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인

완충력은 지금까지 서술한 흙의 다면적인 기능이 종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흙이란 완충력이 큰 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흙의 완충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부하)에 대하여 흙 자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거나 처리 해소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본래 흙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환경에 잘 순응해 가는 힘이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산과 알칼리가 가해지거나 온도, 열 등 기상에 의해 영향이 가해지더라도 그 영향을 가능한 한 완화하여 변화되지 않도록 조정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여름철 무더위에도 흙이 해안의 모래처럼 뜨겁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완충력 때문이다.

흙이 본래 뛰어난 완충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흙이 유기물이나 무기물, 생물이나 무생물, 공기나 물이나 덩어리를 포함하고, 그 크기나 양도 매우 다양하며, 또 다공질의 복잡한 구성요소를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흙의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곧 흙의 파괴로 이어져 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글 이태근 회장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5>

퇴비는 호기성·혐기성 미생물의 합작품

5. 퇴비는 호기성 발효가 좋은가, 혐기성 발효가 좋은가?

퇴비를 만들 때 호기성 발효를 할 것인가, 혐기성 발효를 할 것인가로 고민하거나 그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농가가 많다. 호기성 발효란 공기(산소)가 잘 통하게 한 상태에서 부숙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수분을 적당히 조절하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퇴비더미를 쌓아 퇴비더미의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자주 뒤집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퇴비의 제조는 주로 호기성 발효를 한다. 통기성이 좋으면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아져 산소를 많이 소모하여 그 호흡열에 따라 고온으로 발효가 진행된다. 반대로 통기성이 나빠 산소가 부족하면 호기성 미생물의 수는 줄어드는 대신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이 득세하여 온도가 떨어진다. 그때마다 공기를 공급하려고 뒤집는 것이다.

혐기성 발효란 되도록 촘촘하게 재료를 혼합해서 쌓고 수분을 넉넉하게 준 다음 거의 뒤집지 않는 방법

이다. 비닐 같은 것으로 퇴비더미를 밀폐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더욱 촘촘해지게 험껏 밟거나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혐기성 발효의 중요한 원리이다.

그런데 사실 어떤 발효가 더 좋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퇴비는 어디까지나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의 합작품이지, 어느 한쪽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발효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에 따라서 완성된 퇴비의 품질이 달라진다.

호기성 퇴비의 경우 재료의 색깔이 변하고 원형도 흐트러지지만, 혐기성 퇴비는 재료의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재료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고온 발효를 하면 질소분과 유기물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재료의 원형이 많이 분해되어 토양에서 물리성을 개량하는 효과가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는 혐기성 발효 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사람이 먹는 김치나 가축의 먹이



로 쓰이는 사일리지는 영양분을 유지하려고 철저히 혐기성 발효를 한다. 퇴비를 발효시킬 때 혐기성 발효는 영양분을 포함한 여러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퇴비의 재료에 따라 발효 온도를 고온으로 올려야 하므로 문제가 된다.

최근 퇴비의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질원이 부족하여 나무껍질이나 톱밥, 대패밥(사진) 등의 목질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목질류는 고온으로 발효시키지 않

으면 나무 자체의 독소인 유기화합물이 분해되지 않은 까닭에 종자가 발아하지 않거나 어린 모종이 발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목질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퇴비는 반드시 고온으로 장기간 발효시켜야 한다. 또한 혐기성 발효과정에서 각종 병원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거나 잡균이 많은 '썩은 퇴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호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박동운 홍살림 이사가 루페를 이용해 벌레를 관찰하는 법을 안동생명과학고 학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흙살림에서 교육받고 싶어요”

안동생명과학고 현장 교육 가장 가고싶은 교육장 꼽아

“흙살림 농장에 가서 꼭 실습 하며 배우고 싶어요.” 흙살림은 안동생명과학고 식량과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1~2학년 학생들이 4~5명씩 조를 이루어 한 조당 약 100㎡ 규모의 텃밭 농사를 짓고 있었다. 지난해엔 1학년생은 감자와 배추를, 2학년생은 양배추와 콩 등을 재배했지만, 올해는 각 조별로 희망하는 작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박, 토마토, 감자, 오이, 상추, 콩 등이 주를 이루었다. 박동운 홍살림 이사는 작물 재배 관리 요령을 알려주기 전 퇴비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친환경 농사 여부를

떠나 토양을 가꾸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퇴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희 홍살림연구소 사무국장 또한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건강한 땅을 만드는 것이 먼저”임을 전달했다. 이어 루페를 이용해 벌레를 관찰하고, 해충이 피해를 입히기 전 방제하는 법과 친환경약제의 장점과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권인찬 학생(1학년)은 “올 여름 우리가 키운 수박을 꼭 먹을 것”이라며 “흙살림에 가서 꼭 교육을 받고 싶다”고 소망했다. 실제 흙살림 현장실습 교육장(WPL)은 안동생명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

어하는 교육장이라고 한다. 한영선 선생님은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흙살림 교육장을 선택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실습교육을 맡고 있는 김수정 선생님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퇴비와 친환경 자재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흙살림은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실제 농사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땅과 퇴비, 친환경 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글·사진 이방현 기자

다년생 샤프스타데이지 베어내도 다시 새싹

꽃밭지기의 농촌생각<4>



샤프스타데이지를 비롯해 로켓, 붉은 인동, 펜스 데몬, 낮달맞이, 백당나무, 백화등, 산딸나무, 꽃양귀비, 노랑꽃창포, 알리움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금부터 장마가 오기 전까지가 제일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여기가 진짜 꽃자리다. 6월부터는 백합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가며 한 달은 백합 천지가 된다. 올해는 장미를 백 포기 넘게 심어 내년 봄부터는 장미가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비닐 온실에도 꽃으로 뒤덮으려고 여러 종류를 준비 중에 있다. 샤프스타데이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매년 이렇게 한 달 정도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 번식이 너무 왕성해서 꽃이 지고 나면 곧바로 씨앗이 여물기 전에 낮으로 베어내야 하며 만약 씨앗이 여물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은 대책이 없다. 샤프스타데이는 다년생이라 베어내도 다시 새싹이 나와 지상부가 원상복구된다. 샤프스타데이는 꽃양귀비와 잘 어울리며 꽃양귀비 씨를 받아 9월 이전에 뿌려주면 씨앗이 발아가 되어 겨울을 나고 다음 해 샤프스타데이지 꽃과 거의 동시에 피기 시작한다.

글 이태호 흙살림현장농민연구원

잿빛곰팡이병 잡아라! 방제와 생육촉진을 한 번에!

토리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 (특허번호 0417632)로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병,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전염병원균을 억제합니다.



*등록공시: 공시-2-4-58
*등록번호: 43-살균-1

*품 목 명: 트리코델마 하지아눔 YC459 분상제

구입 및 문의사항 흙살림 농자재 사업본부 043-216-8179

건강한 토양을 위해! 튼튼한 작물을 위해!

익살림!

흙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진흥청 특허 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로 흙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액상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흙살림 | shop.heuksalim.com

친환경 농축수산물 전문 쇼핑몰

마켓투유

새콤달콤 피로회복 증진 큰판왕

유기농 청매실 예약판매

6월 14, 15, 21, 22일 출고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몰주문 : www.marketoyou.com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수박 6~7g
19,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블루베리 200g
8,5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바나나 800g
4,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참외 1kg
8,5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주먹사과 1kg
5,0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청매실 5kg
24,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5,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5,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토마토 1kg
4,5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조리용감자 1kg
4,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미니파프리카 200g
2,9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가지 1개입
2,9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황매실 5kg
32,0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오이고추 150g
1,6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청양고추 100g
1,6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햇파마 500g
1,8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브로콜리 150g내외
2,4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양배추 1입
3,3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애호박 1입
2,800원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당근 500g
1,800원

CAMPING FESTIVAL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안심 200g 29,000원	무항생제 등심 200g 21,900원	무항생제 삼겹살 400g 11,000원	무항생제 목살 400g 10,500원	무항생제 채끝살 200g 19,9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간장닭갈비 400g 15,700원	유기농 간장닭갈비 400g 15,700원	유기농 간장닭갈비개구이 400g 14,500원	유기농 고추장닭갈비 400g 15,700원	유기농 스모크 닭가슴살 150g 5,5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닭껍질꼬치 250g 7,500원	유기농 닭다리살꼬치 250g 9,900원	친환경 파프리카 1ea 2,900원	친환경 청상추 150g 1,200원	친환경 적상추 150g 1,200원

홍살림 추천상품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골든퀸 백미 8kg 35,000원	유기농 현미 4kg 20,000원	토종선비잡이콩 400g 6,000원	동물복지 유정란 10구 10,000원	무항생제 메추리알 24입 2,500원	살림두부 350g 3,000원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홍살림참기름 250ml 22,000원	홍살림들기름 250ml 15,400원	생들기름 120g 7,700원	유기농 설탕 1kg 4,200원	어린이달과자 70g 2,500원	홍살림 구운유정란 6입 3,500원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청국장 120g 2,200원	양파바르게담아 30포 42,000원	황금도라지진액 30포 22,000원	아침든든 영양죽 45g 4,400원	닭가슴살 야채죽 45g 4,400원	한우고기 버섯죽 45g 4,400원

6월, 논일은 천지인의 생명 나눔이다

월령의 지혜를 배운다



절레꽃이 지고 아카시아 피는 6월에는 절기 망종과 하지가 들어 있습니다. 낮이 길고 일사량도 많을 때이니 논밭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농사일이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종을 전후해 논에 모가 들어갑니다. 흥해리 시인은 오래된 이 무렵의 풍경을, “고향집 텃논에 개구리 떼 그득하겠다/ 울음소리 하늘까지 물기둥 솟구치겠다/ 종달새 등지마다 보리 익어 향긋하겠다/ 들녘의 농부들도 눈코 뜰 새 없겠다/ 저녁이면 은은한 등불 빛이 정답겠다/ 서로들 곤비를 등에 지고 잠이 들겠다”(「망종」 전문) 노래합니다. 정말 바쁠 때입니다. 농사일이 기계화된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따 이 사람, 자네 요새/ 논에서 묵고 논에서 잔께/ 자네 각시 그곳에 곱팡이 슬어볼것네/ 짓곳은 어른들 놀려대어도// 마을의 유일한 청춘 정수곤이는/ 아나네 노인네만 남은 이 집 저 집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득달같이 달려가/ 콤파인으로 보리 베고/ 트랙터로 논 갈고/ 이앙기로 모 심을라/ 담배 한대삼도 아깝기만”(고재중 「정수곤」에

서)할 때입니다.

홍살림토종농장도 이 무렵에 벼종자 보존과 교육을 위해 손모내기를 합니다. 3년 전부터 저도 모판과 논 만들기 그리고 손모내기를 했습니다. 손모내기는 흙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흙을 향해 허리 굽히는 게 모든 일의 시작”(함민복 「논 속의 산 그림자」에서)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생명을 짓는 농사일은 천지간의 생명적 관계를 때에 맞게 고마움 마음으로 잇는 행위입니다. 특히 모내기 과정이 서로의 손을 보태고 노동을 나누는 공동체적 협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 못하는 저를 위해 손이 잔 윤성희 홍살림이사가 고생했던 일을 떠올리면 ‘사람 사는 세상은 이리해야만 하는구나’ 입가에 웃음이 스칩니다. 그런 공동체적 생명 나눔을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모내기를 하며

- 오철수

함께 간다는 것은

혼자일 때는 없던

하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옆 사람과 비슷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나처럼 일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조금씩 덜어주며
하나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제 몫의 일은 늘 하나의 리듬 속에서
저마다 다르게 생겨나는 것이어서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하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하며
하나의 리듬이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은 공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리듬에 몸을 싣고 나누는 것
빠른 손도 오래전 그 리듬에서 만들어졌고
더 견디는 몸도 그 리듬에서 만들어졌으며
막걸리와 웃음을 나누는 풍습도
그 리듬에서만 자랐다
모내기 끝낸 논이 신성한 느낌도
함께 했던 하나의 리듬에서다

글 오철수 시인·문학평론가

6월의 농사 이야기-망종과 하지

장마가 오기 전 하지 무렵 수확하는 감자

■ 망종

요즘 농촌은 한창 모내기로 바쁘다. 5월 초에 모를 심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6월 초에 모내기를 한다. 1년 중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로 여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망종’이다.

망종은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며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에 해당한다. 망종은 벼·보리와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벼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 등이 있다.

이 시기는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매화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때이다.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이 무렵은 “밭등에 오줌 싣다.”라고 할 만큼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이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며,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바쁘다.

망종에 행하는 풍습으로 ‘망종보기’가 있다.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들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음력 4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두어 들일 수 있으나, 5월에 들면 그해 보리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 보리농

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곧,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들에 따라 그해의 보리수확이 늦고 빠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망종이 4월에 들면 보리의 서를 먹게 되고 5월에 들면 서를 못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보리의 서를 먹는다는 말은, 그해 풋보리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예전 양식이 부족해서 보리익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풋보리를 베어다 먹었던 시절 우리네 삶을 엿볼 수 있다.

■ 하지

하지는 망종과 소서 사이의 절기로 음력으로는 5월, 양력은 6월 21일 ~ 22일 무렵에 찾아오며, 입하부터 대서까지 다양한 여름 절기가 있지만,하지는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절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농사를 짓는 백성부터 나랏일을 보는 임금까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마음을 정갈히 하곤 했다.

하지는 한자로 夏至라고 쓴다. 여름 하(夏)와 이(至)를 써서 여름이 다 왔다는 뜻으로, 일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제일 긴 시기이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다가 하지에 이르러 낮 시간이 가장 길어지면서, 더위가 계속 쌓여 하지 이후에 무더위와 장마가 찾아온다.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므로 이때는 일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이다. 메밀 파종, 누에

치기, 감자 수확, 고추밭매기, 마늘 수확 및 건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병충해 방제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나는데, 이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따라서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다.

보은용 비닐 못자리가 나오기 이전 이모작을 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하지 ‘전삼일, 후삼일’이라 하여 모심기의 적기로 여겼다.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했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속담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또한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따라서 예전부터 하지에 행하던 풍습 중 대표적인 것이 기우제이다. 농사는 나라의 뿌리였으므로 옛 농촌에서는 하지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어려워져 임금이 직접 나서서 기우제를 지냈다. 하지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감자가 있다. 감자는 이른 봄에 파종해 24절기 중 하지 무렵에 수확을 하기에 ‘햇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부른다. 감자는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인 하지께 수확을 한다. 강원도에서는 이 무렵 감자를 캐어 밥에다가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감자가 잘 열린다고 믿었는데,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 ‘하짓날은 감자 캐먹는 날로 감자 환갑이다’라는 말도 있다. 이 무렵 감자 수확 시기를 놓치면 감자알이 잘 배지 않아 감자 싹이 죽기 때문이다.

6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6월 1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살림두부	350g
냉동오징어	1팩
대파	1봉
컬리플라워	1개
양배추	1통
레디쉬	1봉
깻잎	1봉

6월 2주차	
품목	단위
파리고추	1봉
멸치	1봉
구운유정란	6알
살림두부	350g
수리취떡	1봉
느타리버섯	1팩

6월 3주차	
품목	단위
앞다리살	1팩
살림두부	350g
자색양파	1봉
우리밀전병	1봉
시금치	1봉
팽이버섯	2봉
감자	1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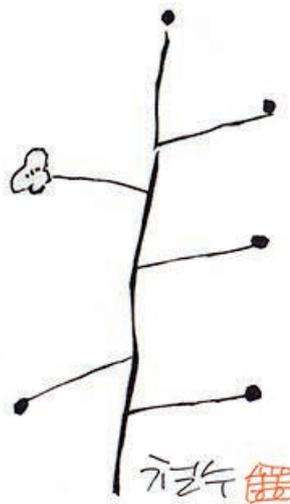
6월 4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공국물	1팩
통밀국수	1봉
강낭콩	1봉
오이	2개
깻잎장아찌	1팩
파프리카	1봉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잡초...

거름지내고 나서부터, 아내는 틈만나면 마당에서 풀을 뽑습니다. 물론 밭에도 풀이 많아 안락에서 풀을 뽑지요. 논밭둑에 나는 풀은 제소판입니다. 대개, 예취기를 들고 나가서 도둑하는 방식을 씁니다. 아내는 조용히 밭본사육인 방식을 쓰는 사람인가요? 올해는 논풀도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지난해 피가 잡자기 많아져서 올해 충광제하면 큰일입니다.



기린수

밭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깝다던 것들. 비가 한눈에 살게 된 것을 이만큼 '잡'이라 부르는 미안하다

5월 휴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일	괴산	교육	22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만들기 교육
1일	수원	교육	35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교육
2일	괴산	견학	45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삼방리 견학
4일	영천	교육	35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만들기 교육
8일	청주	회의	8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제2차 이사회
9일	보령	교육	32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만들기 교육
15일	대구	교육	30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만들기 교육
16일	안동	교육	20	한국생명과학고 식량과 텃밭 현장교육
11·17·19·24일	제천 외	연구		농림부 연구과제 농가조사
6월 2일	괴산	행사	90	제2회 농사예술제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권택기, 김광부, 김규운, 김기연, 김남운,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정송,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중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기환, 박동운, 박래훈, 박상일, 박영구, 박정국, 박중삼, 박중수, 박중원, 박중화, 박준수,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동환, 백미숙, 백은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석종욱, 설희교, 성경숙, 성기남, 성영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연관, 신중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경섭, 안경택, 어해용,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육중식, 윤국현, 윤성희, 윤슬기,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희,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홍택, 정구홍, 정구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관진, 정창환,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중기,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중운, 황대호, 황인걸

※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휴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휴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알찬꾸러미
월4회 12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와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미니과일꾸러미
월4회 80,000원
친환경사과, 토마토, 유기농바나나와 제철과일 1종으로 구성되어 껍질째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나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공자에게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인仁을 실천해가는 나였으며 인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물[과過, 지나침]을 좋게[선善] 고쳐나가는[극克], 곧 개선改善해나가는 나였다. 여기에서 '선善'의 원래 글자 '선善'(작할 선)인데 이는 羊(양 양)+言(다투어 말할, 말다툼 할 경)이 합쳐진 글자다. 공동체에서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잘 처리하여[공교工巧, skillful]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빼어난 것[고명高明]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에 딱 알맞은 것이 선이다.

한편 양주의 나는 욕망하는 나였다. 이 욕망은 춘추시대의 높아진 농업 생산력 수준과 잉여의 증가, 분배를 둘러싼 갈등, 잉여인구의 탄생(유민流民이나 도둑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것이었다. 춘추전국 시기는 씨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대신 소농민小農民 경영이 정착되고 보편화되던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씨족적 질서 속에 매몰되었던 개인이 해방되어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맺기도 했고 사유에서도 주술적이고 신정적神政的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이성구, 「춘추전국시대의 국가와 사회」, 『강좌 중국사』 1). 이제 선善의 조건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투어 말해야 했다.

공자는 선 자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예禮를 말함으로써 선, 궁극적으로는 인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래 공자의 인식과 실천은 극기와 온고(溫故,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 곧 이성이라는 관념이 아닌 현실의 대상에 기초한 연구) 또는 박학(博學, 끊임없이 앞의 영역을 넓혀나간다)이라고 하는 열린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외적 규정으로서의 닫힌 체계인 예를 도입함으로써 모순이 생기게 된다(정명正名 역시 닫힌 체계다). 반면에 맹자는 예라고 하는 외적 규정보다는 의義를 말함으로써 내적 구속을 강조했다(리링, 『논어 세 번 읽다』). 원래 '의' 역시 공동체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마땅함을 뜻한다(『釋名』義, 宜也. 裁制事物, 使各宜也). '의'의 갑골문은 義

인데, 공동체 내의 배반을 응징하는 창[我]과 제사의 희생犧牲으로 쓰이는 양羊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선'이 말에 의한 판단임에 비해 '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죽임[살殺]까지를 포함하는 마땅함이다(신정근, 『사람다움의 발견』). 그러므로 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외적인 것이다. 곧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죽음을 담보로 나에게 외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맹자는 의가 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사람의 본성은 다 비슷하다는 지적은 있다). 또한 인仁이 본성인지 아닌지도 말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것이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일견 공자의 인은 내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언행, 곧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러한 외화-실현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재적인 것이기도 하다. 『논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공자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자는 내가 나서고 싶으면 남을

내세우라거나[仁]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恕]는 등, 모두 자기의 양심에 충실한 태도를 남에게까지 확장해나가라고 하였지(이현구) 내 안의 인을 파고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에게 인이나 의는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였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때 아마도 공자에게 도덕의 기초로 세워진 것은 편안함[安]일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자의 도덕적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편안함은 맹자에게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불인不忍의 개념으로 바뀌어 사단칠정으로 발전한다).

줄리앙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천명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는 입장(『중용』과 『주역』)과 인간의 체험(감정), 예를 들어 동정심이나 수치심 같은 것에서 출발하는 입장(맹자)으로 나뉘었다고 한다(『맹자와 계몽 철학자의 대화』). 출발은 다르지만 둘 다 도덕에 관한 의

식이 내재적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같다. 공자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천명知天命 이후 공자가 하늘을 어려워했다(외천명畏天命)는 점과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편안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 공자의 이러한 관점, 곧 열린 방법론과 닫힌 체계 사이의 모순, 천명과 인간의 감정 사이의 모순은 상주商周 교체에 나타난 천명과 덕의 관계, 곧 상나라를 정복한 것이 천명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하늘이 덕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하늘의 덕은 세습된다고 하는 주나라의 자기모순이 춘추시대에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공자는 주나라를 따르겠다고 했다). 맹자는 바로 이런 점을 극복하려했지만 그 해결책을 일차적으로 마음에서 찾았기 때문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한지 악한지를 따지는 미궁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고자告子와의 무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휴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휴살림 친환경 충해 관리용 자재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충식이 500ml

- 고농도 식물추출물 함유
- 광범위 충해관리효과
- 각종 해충, 나방류에 적용 가능
- 공시-3-5-038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잘들어 500ml

- 천연식물 추출물로 안전성 검증
- 각종 해충에 적용 가능
- 공시-3-5-007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청달래 1L

- 안전한 BT미생물 제제
- 나방 및 나비유충에 적용 가능
- 공시-3-5-001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친환경병충해관리보조

잘들어 500ml

- 뛰어난 보조효과로
- 자재 사용 효율 증진에 기여
- 공시-3-4-025